

<b>사)에너지전환포럼</b> 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	<b>보 도 자 료</b>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b>2018년 8월 17일(금) 즉시 보도가능합니다</b>		
<b>배 포</b>	2018. 8. 17 (목)	
<b>문 의</b>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학회 원전 여론조사 검토

###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자의적이고 왜곡된 해석 경계

에너지전환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의견을 오늘(17일) 발표하면서 국민여론을 자의적이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질문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며, ▲답변 해석도 편향적이며,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여론이 마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돌아선 듯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당장 원전을 제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원전을 이용하면서 서서히 줄여가는 정책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현재의 원전이용에 대한 찬성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찬반 질문이 아니므로 71.6%를 탈원전 정책의 반대여론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과거 원자력문화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필요성 89.9%’ 응답률보다 18%나 낮아져서 원전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전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증설하자는 의견이 최근 다른 여론조사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번 조사(‘18.8.6~7)가 폭염이 최고조에 달해 전력부족 우려가 집중 보도되던 시기에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의 문제점을 부각하던 때에 실시됐다는 점이 조사결과의 일시적인 왜곡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기관의 편향성을 고려하면 2015년 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데 당시에 원전 증설 및 유지 응답은 84.2%였으므로 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 결과인 69.3%는 15%나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못한다는 평가(50.1%)가 잘한다(45.5%)는 평가보다 우세하다는 결과를 두고 마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에너지전환포럼은 지적했다.

질문이 “전력정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로 되어 있어,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요금 등에 대한 논란, 폭염대책에 대한 불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여론조사가 의미를 가지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가 까다롭고(82.4%)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인 중대사고 가능성이 있으며(75.9%) 사고대비, 폐로비용 등 고려하면 비싼 발전원(63.4%)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원전관련 정보나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언론이 최하위인 25.1%로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폭염과 누진제, 원전수출 등의 논란에서 잘못된 정보와 여론몰이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고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원자력학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2018. 8. 17

사단  
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홍종호·유상희·임성진



\*문의: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정책팀장 김창민 010-3918-1862

# (사)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전환포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 한국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원전이용에 찬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질문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며, ▲답변 해석도 편향적이며,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조사에 대한 (사)에너지전환포럼의 평가 및 검토의견을 공유합니다.

### I 조사방식의 문제점

#### 1. 질문방식의 문제 ① 원자력의 이용

- 에너지전환은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전제로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이므로 지금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님
  - 그러나 해당 질문은, 지금 당장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이용에 대한 찬성 여부를 질문하였음
- 탈원전정책 평가질문으로 부적절

#### 2. 질문방식의 문제 ② 정부의 전력정책 등을 평가

- “정부의 전력정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은 원전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폭염으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누진요금의 한시적 완화에 대한 불만,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 등) 등 다른 정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전환정책 평가 질문으로 부적절

### 3. 답변해석의 편향성

- 지금 당장의 원전 이용에 동의하는 것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고, 전기요금과 폭염대책에 대한 불만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로 해석  
→ 답변해석의 객관성에 문제

### 4. 일회성 조사의 한계

- 연도별 시계열 조사가 아닌 일회성 조사  
→ 장기적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

## II 주요 설문항목에 대한 평가 및 검토

### 1. 원자력의 이용과 에너지전환정책

- 한국원자력학회의 조사는 원자력 발전소 이용에 대한 찬반을 조사(원자력 이용 찬성 71.6%) 것임.
- 지난 6월 발표한 한국갤럽과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찬반을 조사(에너지전환 찬성, 갤럽 72%, 현대 84%)

#### □ 평가 및 검토의견

- 원자력 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에너지전환에 대한 조사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 운영, 건설 중인 원자력 이용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음
- 에너지전환 정책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자연 감소시킴으로써, 60년에 걸쳐 장기적, 단계적으로 원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임
- 원자력발전 이용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지 않고, 이용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질문의 타당성 반감

### 2. 원자력발전 비중

-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에 대해 의견을 묻는 최근 3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이번에 발표된 한국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결과만 큰 차이 발생
- 다른 설문조사에서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두 10%대에 불과. 이번 조사

**에서만 37.7%로 급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년 9월)	한국갤럽 (2018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6월)	한국원자력학회 (2018년 8월)
12.9%	14%	10.4%	<b>37.7%</b>

□ **평가 및 검토의견**

- 일회성 조사 결과만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가 시기 변수에 의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음
- 조사기간(8월 6일~7일)도 폭염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의 문제점을 부각하던 시기에 실시됐다는 점이 조사결과의 일시적인 왜곡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과거 원자력문화재단이 매년 실시하던 여론조사에서 현 수준 유지 및 증설에 대한 응답이 최대 84.2%(2015년)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69.3%는 여론조사기관의 편향을 고려하더라도 낮은 수치임

**3.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 **평가 및 검토의견**

-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못한다는 평가(50.1%)가 잘한다(45.5%)는 평가보다 우세한데 질문이 “전력정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로 되어 있어,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요금 등에 대한 논란, 폭염대책에 대한 불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이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임

**4. 가장 적합한 발전원**

- 이번 조사에서 전기 생산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은  
(1순위)  
**태양광(44.9%), 원자력(29.9%), 가스(12.8%), 풍력(9.1%), 석탄(1.7%)**  
(1+2순위)  
**태양광(70.5%), 원자력(48.2%), 풍력(40.8%), 가스(28.5%), 석탄(4.4%)**

□ **평가 및 검토의견**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원전과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에너지 수요관리와 가스와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인데 국민들은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태양광을 지지

- 풍력을 포함하면 59% 지지, 가스를 포함하면 71.8% 지지이므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 5. 그 외 주목할 만한 결과

-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까다로움(82.4%)  
원전은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인 중대사고 가능성(75.9%)  
원전은 사고대비, 폐로비용 등 고려하면 비싸짐(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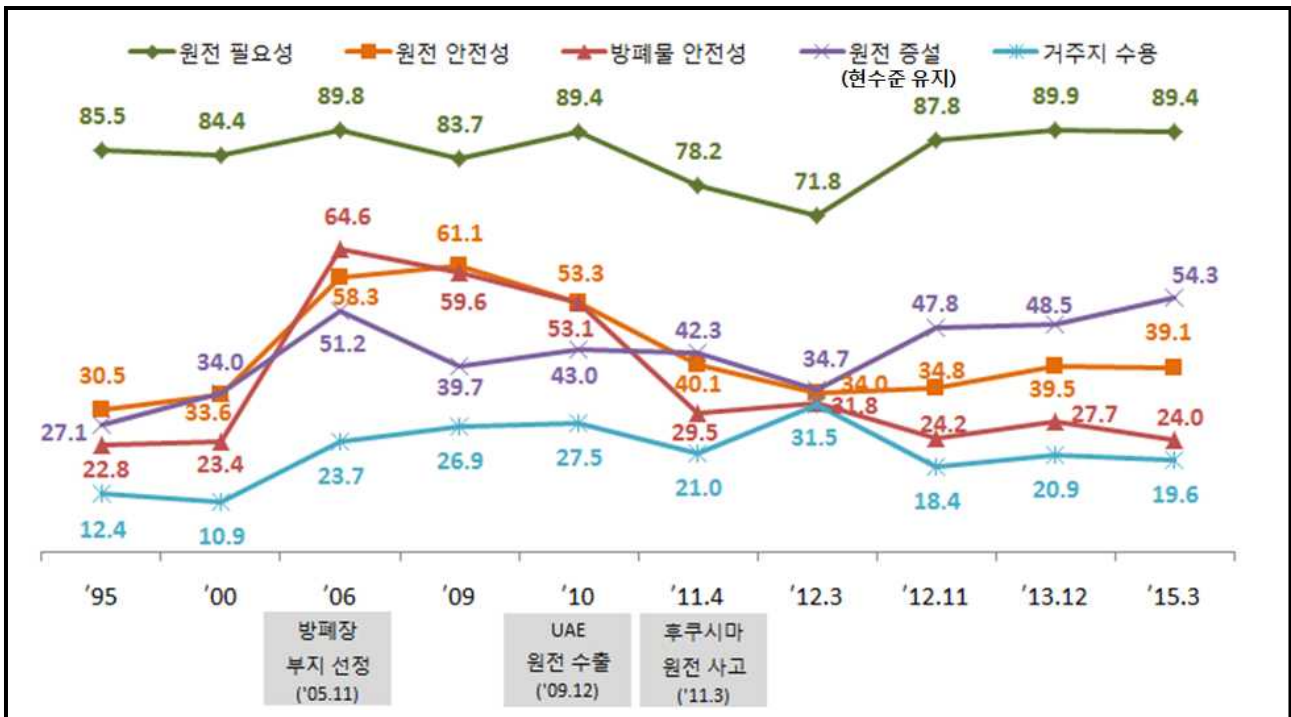
- 평가 및 검토의견

- 원전의 문제점을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

# 참고 1

## 원자력문화재단 여론조사 결과 추이

연 도	'95	'00	'07	'08	'09	'10	'12	'13.12	'15.3 (13년 대비)
원자력발전 필요성	85.5	84.4	82.8	89.8	83.7	<b>89.4</b>	<b>87.8</b>	<b>89.9</b>	<b>89.4</b> (↓ 0.5%p)
원전 안전성	30.5	33.6	51.4	58.3	61.1	<b>53.3</b>	<b>34.8</b>	<b>39.5</b>	<b>39.1</b> (↓ 0.4%p)
방폐물관리 안전성	22.8	23.4	53.3	64.6	59.6	<b>53.1</b>	<b>24.2</b>	<b>27.7</b>	<b>24.0</b> (↓ 3.7%p)
원전 건설	증설 지지	55.5	48.3	43.6	41.4	50.6	<b>45.9</b>	<b>39.5</b>	<b>34.3</b> (↓ 4.4%p)
	현수준 유지	27.1	34.0	38.2	51.2	39.7	43.0	47.8	48.5
거주지내 원전수용도 (원전건설 찬성)	12.4	10.9	27.4	23.7	26.9	<b>27.5</b>	<b>18.4</b>	<b>20.9</b>	<b>19.6</b> (↓ 1.3%p)



참고 2

최근에 실시된 다른 기관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

구분	한국원자력학회 (‘18.8)	현대경제연구원 (‘18.6)	한국갤럽 (‘18.6)	신고리5·6호기 공론화 1차조사 (‘17.9)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리서치	한국갤럽	한국갤럽
조사대상	1000명 (남:496, 여:504)	1,009명 (남:511, 여:498)	1,001명 (남:536, 여:465)	20,006명 (남: 여:)
조사기간	‘18.8.6~8.7	‘18.5.30~‘18.6.7	‘18.6.26~6.28	‘17.8.25~9.9
질문내용①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약 30% 정도를 담당합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전기생산 비중을 어떻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앞으로 원전(원자력 발전)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정책이 다음 중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자력발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응답결과	확대 37.7% 유지 31.6% 축소 28.9%	확대 10.4% 유지 20.1% 축소 67.8%	확대 14% 유지 40% 축소 32%	확대 12.9% 유지 31.1% 축소 39.2%
질문내용②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기 생산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부는 원전(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응답결과	찬성 71.6% 반대 26.0%	찬성 84.6% 반대 12.3%	찬성 72% 반대 15%	